

녹색도시 운동을 전개하자

지금 세계는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
한창이다.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에 의해 벌어지는 녹색도시운동.
우리에게도 95년 6월에 실현예정인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와 함께 이 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朴英淑 <한국 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

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세계의 110여 개국의 정상들이 자리를 같이했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리우선언문'과 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의제 21'이라는 행동계획을 합의한 바 있다. 이 회의를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난 6월 24일에서 28일까지 영국의 산업도시 맨체스터에서 '도시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주제하에 개최되었던 '94 지구환경회의(Global Forum 94)'를 아는 사람은 많은 것 같지 않다. 이 회의에는 세계의 50개 도시로부터 600여 명

의 지방정부, 의회, 기업체 그리고 민간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여 21세기의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의제 21'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회의는 리우회의 이후 유엔의 '지탱가능한 발전 위원회(CSD)'가 마련하는 첫 국제회의였다. 이 회의의 목적은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0년대의 도시정책에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도시 빈민, 취업과 생계, 정부의 기능과 시민과의 민주적 협력관계, 도시환경과

Copyright
2021

건강, 자원과 토지이용, 시장기능과 재정, 그리고 교통과 통신문제 등이었다.

이 회의는 지금까지의 크고작은 환경관련 국제회의와 다른 점이 있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대표들과 기업체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처음으로 자리를 같이한 것이며 지역에서 실행가능한, 그리고 시민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을 시민 차원에서 논의한 회의였다는 데 있다. 이 회의에서의 300페이지에 달하는 토의결과는 유엔 기구에 제출되어 녹색도시를 위한 국제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나라 도시가 이번 회의의 참가도시로 선정된 50개 도시에 포함되지 못한 일이다.

리우에서의 지구정상회의에서 우리 나라도 합의에 서명한 바 있는 의제21의 제28장에서는 참가국들로 하여금 오는 96년까지 국가별 그리고 지방정부별의 의제21을 설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여유는 1년여에 불과하다. 이 시점에서 궁금하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정부는 이에 대해 무엇을 어디까지 누구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 세계 여러 도시에서는 그들의 도시를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세계의 녹색도시운동은 시작된 것이다. 녹색도시운동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에 의해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있어서도 95년 6월에 실현 예정인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와 더불어 활발해질 것을 기대하나 이 작업은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여러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한다고 해도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지구의 지탱 가능한 발전

리우의 지구정상회의의 중요한 성과물의 하나인 의제21은 21세기를 향한 지구의 지탱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인 지탱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협력관계의 청사진이다. 이것은 40장으로 이루어진 7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문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자원 소비 감축△폐기물 배출 감축△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공해 감축 및 방지△오염지대 정화△환경훼손 방지△에너지 관리△환경 우호적인 교통수단△산림과 종의 다양성 보존△차별과 빈곤 타파△각 사회집단의 세력화△인간의 기본인권으로서의 주택문제를 비롯한 생활요건 확보△균등한 교육기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의제21은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의제21의 3분의 2의 행동계획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없이 실현가능하지 않

기 때문이다. 유엔은 '지탱가능한 개발위원회'를 구성, 각 국가들의 의제21의 실천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위원회는 각 국가들로 하여금 이에 상응하는 국가별의 위원회를 두고 사업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96년도까지의 2년간 그리고 1996~2000년까지의 5년계획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도시들이 리우회의 직후부터 '지방 의제 21'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세계에는 또한 이러한 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와 지방정부들의 연대와 협력관계를 도모하는 '도시 연맹'같은 기구들도 조직되어 세계의 도시행정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도시발전의 새로운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쌍방간의 협력관계인 자매결연이나 국가를 단위로 하는 유엔과도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유엔이 앞으로도 계속 도시화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총회가 96년 6월 3일에서 14일까지의 회기를 이스탄불에서 '유엔 정주권 제2차 회의(UN Habitat II Conference)'를 개최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 '도시정상회의'로 불리는 이 회의에서는 도시화 문제를 국제적 그리고 국가적 발



필자

전계획의 우선과제로 부각시키는 것을 필두로 도시관리 문제와 주택개발의 새로운 정책과 전략을 촉진시키고 도시 환경문제 해결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도시의 기간시설과 봉사기능강화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과 기회제공을 도모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도시를 건강하고 안전하고 형평성 있으며 지탱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엔이 도시화 문제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앞서 지적한 2000년대에 이르면 세계 인구의 50%가 도시에 살게 되며 나머지 50%의 인구들도 그들의 경제적 문제를 도시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도시의 인구가 폭증하게 되며 환경파괴와 사회적 혼란, 실업률의 상승, 그리고 주택문제

를 비롯한 시민의 생활여건을 열악하게 하는 것 등의 도시화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도시화에 대한 유엔의 관심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구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도시들로 하여금 그들의 문제를 그들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세계 곳곳의 녹색도시운동

지금까지 알려진 세계의 다자간의 환경협약은 150여 개에 이르고 있다. 우리 나라도 25개의 주요 국제환경협약에 서명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도 지구환경 보존에의 참여의사를 표명한 것이 되며 따라서 우리 나라도 협약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중앙정부가 '한국 의제 21'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들도 '지방 의제 21'을 각각의 지방 사정과 특성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듣기로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아직 지방의제 21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지방정부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이러한 오늘날의 현실에서 오늘날의 국경없는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앞으로 지방자치제 실시로 시민자치시대에 들어서게 되면 지역환경정책에서 양극의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

도 있다. 지역주민들의 주인의식 발휘로 환경이 보전되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민간환경단체들이 몇 지역에서나마 시범사업에 착수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가와자키 시의 경우를 보면 이 도시는 21세기를 향한 녹색도시 만들기의 슬로건으로서 '가와자키 신시대'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그들의 활동이념은 사람과 환경에 친화적인 복지도시, 세계에 개방된 활력과 매력 넘치는 도시, 시민의 참여와 연대에 의한 시민자치를 존중하는 도시, 그리고 시대를 주도하는 힘이 넘치는 도시사회 건설에 두고 있다.

이 도시는 '가와자키 신시대 2010 계획'이라고 명명된 녹색도시의 종합계획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시민들은 '생태 감시 25(Eco Check 25)'라는 생태계의 상태를 점검하는 25개 항목을 설정하고 도시환경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시애틀의 경우 시민들이 전개하는 '지탱가능한 시애틀의 지표'라는 활동이 돋보인다. 이것은 환경, 인구와 자원, 경제, 그리고 문화와 사회 문제에 걸친 40개 항목(1993년도 20개)의 시애틀의 지표를 앞으로 계속 해마다 조사·분석·발표하는 활동이다. 이 작업은 시애틀 시민들에게 당면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가지게 하며, 문제해결에의 참여를 유도해 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94 지구환경회의'에서 이들의 활동은 높이 평가받은 바 있었다. 이들은 활동을 전개하면서 몇 가지 지표는 향상된 것에 반해 보다 많은 지표에서 악화일로에 현상에 직면하면서 실망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시애틀을 지탱가능한 도시, 녹색도시로 만드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후손들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94 지구환경회의'가 열린 맨체스터 시의 경우 리우회의 이전부터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녹색 팀(Green Team)'을 구성하고 활동을 하고 있었다. 금세기 초의 산업혁명의 심장부였으며 일찍부터 도시화가 되어 환경파괴현상의 전시장이기도 한 맨체스터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맨체스터 의회는 녹색 팀으로 하여금 '맨체스터 의제 21'의 작업을 하도록 해 이미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지금은 그의 완성을 위한 다각적인 수정작업에 들어가 있었다.

세계의 어느 도시나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쉽게 할 수 없게 하는 나름대로의 사정들을 안고 있다는 것이 회의참가 도시들의 공통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개발국가의 도시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도시들도 이 과제에 있는 힘을

환경문제 해결의 열쇠는 민간단체들의 압력 정도에 달려있다. 우리나라 각급 정부로 하여금 해당 의제 21을 만들도록 하는 것도 최근 크게 성장한 민간환경단체들의 활동 여하에 달려있다.

다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인간과 함께 생태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을 녹색 도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의제 21'을 수립하라

지구환경문제가 심각해 지면 질수록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대책은 강경해질 것이다. 또 이와 관련된 국제회의도 빈번해 지고 규제 또한 엄격해 질 것이다. 세계의 도시화 문제를 비롯한 환경대책에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되는 위치에 있다. 아직도 기억에 새로운 UR에서나 GR에서 우리 나라의 뒤쳐진 대처로 인해 입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한 행동계획 설정에 능장을 부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